



달라진 세밀 풍경... 술 'NO' 커피 'OK'

송년회 간소화되며 음식점 울고 커피점 웃어 식당 단체예약 전년비 급감... 주류 판매도 '뚝'

벡타이 부대가 폭탄주를 주고 받는 연말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일반 음식점도 손님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연말 특수를 누리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도 있다. 이는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저녁식사나 카페 등을 선호하며 송년회를 간소하게 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 시내의 음식점들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가게가 한두 테이블에만 손님이 앉아 있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고모(58)씨는 "연말이면 예약이 많았는데, 올해는 단체손님이 드물다"며 "회식을 하더라도 술을 마시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늘고 있

어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음식점 관계자도 "지나해와 비교했을 때 단체예약이 30% 가량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주류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푸념했다. 이에반해 변화하는 송년회 문화에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문전성시를 이룬 곳도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커피전문점이다. 간단히 술자리를 마치고 커피전문점에 들리는 단체 손님부터 티타임 형식의 간소한 송년회를 하는 손님 등

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강성민(33)씨는 "동료 직원들과 간단한 저녁식사로 송년회를 마무리하고 커피숍을 찾았다"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예년 송년회와 달리 간단한 저녁식사와 티타임으로 송년회 문화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제주시 노형동 한 커피전문점에 근무하는 김지원(여·24)씨는 "최근엔 늦은 시간까지 단체손님이 찾아오고 있다"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연말을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



25일 제주시청 부설주차장 내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승용차량(왼쪽)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내에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관용차량. 김현성기자

임산부·경차 전용주차구역 있으나...

도조례상 단속근거 없어 시민들 "단속도 못 하는 전용주차구역 효과 의문"

경형자동차와 임산부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이 조성됐지만, 이곳에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시청 청사 부설주차장 내에 조성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 승용차량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는 관공서 전기차량 한대가 세워져 있었다. 어린이 승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어 '전용주차'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차량의 전용 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는 도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함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이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과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등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민 윤모(37)씨는 "운전자들이 주차장 공간이 여유 있을 때는 그나마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유 공간이 없으면 전용구역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차를 세우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어 이럴 거면 왜 경차·임산부·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경차 전용구역 등에 주차된 일반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상방법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계도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제재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성기자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1~2월에 사고 집중 사고장소 절반 '집'

도내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낙상환자 중 약 20%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6630건 가운데 1196건(18.0%)이 한겨울인 1~2월에 일어났다. 또 이 시기 평소보다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낙상사고 대부분은 가정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낙상사고의 49.9%인 3309건이 가정내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야외·강·바다(1548건·23.4%), 도로·차도(533건·8.0%), 숙박시설(432건·6.5%), 상업시설(410건·6.2%) 등의 순이었다.

도소방본부는 고령자가 당한 낙상사고는 후유증이 크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26일부터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소방본부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발표했다.

도소방본부는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 시 무리한 행동은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기자



겨울바다에 폭 빠진 말레이시아 관광객들.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25일 김녕해수욕장을 찾아 겨울 제주를 만끽하고 있다. 김희만기자

소방방재청 2009~2018년 제주지역 화재 분석

하루 평균 1.8건... 인구 1만명당 10.5건

10년간 총 6866건 발생 55명 사망... 396억 피해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4일 발간한 소방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866건으로 하루 평균 1.8건씩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10년 사이 도내에서는 화재 사고로 55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액은 396억1708만원으로 추산됐다.

최근 10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해는 2009년이었다. 그해 806건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

제주지역은 인구 수 대비 화재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대비 화재발생 비율을 산출한 결과 제주지역은 인구 1만명 당 10.5건의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8.27건)보다 2.24건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에서 5번째로 화재 발생 비율이 높았다. 화재사고로 인한 제주 지역의 인명 피해 비율은 0.45명(인구 1만명 당)으로 전국 평균(0.51명)보다 낮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는 43만373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1만1963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시설 5만4838건(13%) ▷자동차·철도차량 5만3031건(12%) ▷생활·서비스 시설 4만4912건(10%) ▷임야 2만8940건(7%) ▷판매·업무시설 2만3110건(5%) 등의 순이었다. 이상민기자

수리온 해경헬기 제주배치 내년 3월부터 임무에 투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해양경찰 헬기 'KUH-1CG' 1대가 지난 24일 회전익항공대에 배치됐다고 25일 밝혔다.

수리온 해경헬기는 내년 3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헬기에는 불법조업 단속, 수색구조, 해양사고 예방 등 해양 치안 유지를 위한 다양한 첨단 임



무 장비가 추가됐다. 최대 200개의 표적을 자동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전기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함께 헬기·선박 위치식별 장비, 탐색구조 방향탐지기, 외장 호이스트 등이 탑재돼 입체적인 감시와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이상민기자

토종흑염소목장

가죽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제주최대

흑염소 체험농장 · 편백숲

12월행사 제주도민 무료입장

2020년 해돋이는 고이오름에서

SNS 태그 매월 추천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T. 064.805.5099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편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 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764.6678